

전 연안 고수온 특보 전면 해제

- 올해 고수온 역대 가장 늦은 기간(9월말)까지 지속, 해제시점 전년보다 2주 이상 늦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2일(금) 14시부로 전남 연안 및 내만에 발표되었던 고수온 특보(주의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C 도달 → (경보) 수온 28°C 3일 이상 지속

올해 고수온 특보는 7월 28일 서·남해안(제주 포함)을 시작으로 57일간 지속되었고, 해제 시점도 전년에 비해 2주 정도 늦어졌다.

* 특보기간: ('19) 8.8~8.29(22일) ('20) 8.14~9.4(22일) ('21) 7.15~8.26(43일) ('22) 7.6~9.7(64일)

올해 고수온은 장마로 인해 작년보다 약 3주 늦게 시작(7. 28.)되었으며,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연안 수온이 평년(최근 30년)보다 1~3°C 높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 여름철 수온현황: 평년대비 동해 2°C, 서해 1°C, 남해 2~3°C, 제주 2°C 내외 이상

우리나라 연안의 8월 평균 수온은 25~28°C로 평년보다 1.5~2°C 높게 나타났으며, 9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1~3°C 높은 수온을 보였으나, 이후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온도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수온이 9월 중순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동해, 남해, 제주 등 7개 시·도 총 545개 어가(어류 1,943만 마리, 멧게 861줄)에서 피해신고(9. 20. 기준)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와 추석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231개 어가, 186억 원)를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고수온 현상이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9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피해 어가에 대한 신속한 폐사원인 조사와 조속한 피해 복구(보험미가입어가) 및 보험금 지급(보험가입어가)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0-5614)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사무관	서경란 (044-200-5616)
		담당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책임자	연구관	민병화 (051-720-2750)
		담당자	연구사	황재동 (051-720-2751)
		책임자	과 장	임현정 (051-720-2410)
		담당자	연구관	남보혜 (051-720-2420)
			연구사	최진 (051-720-2431)



참고 1

고수온 특보 해제 발표 해역

